

비료와 식량

2024년 4월호



1. 회원사 동정
2. 협회 주요 활동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 보도 동향
4. 농정 이슈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6. 무기질비료 상식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 소개

KFA 한국 비료 협회

무기질비료 가성비 좋고, 안전하며 효과적입니다.

출처 : 농어촌공사 농촌경관사진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1 회원사 동정

□ 남해화학(주)

○ 김창수 신임 남해화학 대표 취임

- 25일 전남 여수 본사에서 취임식
- “수익성 극대화해 국내 비료값 안정에 힘쓸 터”



김창수 신임 남해화학 대표가 25일 전남 여수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창수 신임 남해화학 대표가 25일 취임했다.

김 신임 대표는 1958년생으로 전북농협본부장과 농협경제지구 상무 등을 지냈다. 김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회사 수익성 제고와 함께 국내 비료시장 가격 안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남해화학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5881억원, 영업이익은 111억원(영업이익률 0.7%)을 기록했다. 김 대표는 “국외 수출물량과 다른 화학제품에서 수익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농가에 비료를 조금 더 저가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남해화학은 이날 강남경 전 농협물류 대표와 임규수 전 강릉농산물도매시장 대표를 부사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 농민신문(2024.3.25.)기사내용 인용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주)조비

○ 아그모-(주)조비 협력사업 '주목'

지난달 27일 전북 김제시에서는 한마음영농조합법인 주최로 자율주행 키트 개발사인 주식회사 아그모 키트 솔루션 설명회와 시연회가 열려 시선을 끌었다.



아그모 솔루션은 기존의 농기계에 설치만 한다면 자율주행으로 바뀌는 마법을 경험한다. 직관적인 작동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사람보다 더 정확한 농작업을 할 수 있으며 정교해진 주행 능력으로 수확량도 10%를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작업 경로 생성을 통해 경작 시간도 20%를 단축한다.

아그모는 특히 트랙터뿐 아니라 다양한 농기계도 자율주행화할 수 있어 이앙기와 콤바인, 방제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직진과 후진 주행뿐만이 아닌, 핸들 조작 없이 터치스크린 조작으로 손쉬운 선화와 다각형의 농지에서도 작업에 알맞은 경로를 생성해 그 경로를 완전 자율 주행하게 설계됐다.

조비는 아그모에 대한 투자와 함께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앞으로 AS를 포함한 기술적인 부분은 아그모에서 담당하고, 전국 총판 유통망은 조비에서 맡아 판매에 나서고 각 조비의 지역 대리점을 통해서도 문의와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자율주행 카트를 부착한 농기계에 탑승해 직접 체험에 나선 (주)조비 이승연 대표이사는 “경농과 조비가 농업 자재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농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왔고 거기에 매우 중요한 안전하게 작업하면서 수확량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하던 중 아그모 자율주행팀과 만나 협력해 기술과 가능성을 보고 투자·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앞으로의 성과에 기대감을 표했다.

조비 서용호 본부장은 자율주행 키트 등 스마트농업 전망과 관련해 “조비에서도 농산업 차원에서 인구 소멸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대농화와 기계화, 기술화되는 부분이 가속화되기에 효과적인 농지 사용과 노동력 절감 등 스마트농업으로 가는 추세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그모 박승진 대표는 “오늘의 시연회를 위해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와 조비에서 많은 지원과 협력을 통해 준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농자재 분야의 풍부한 인프라를 가진 조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들녘경영체를 비롯한 농가들을 위해 자율주행뿐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한 솔루션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들녘경영체-조비, 현장 소통 계속 다짐

한편, 이날 자율주행 시연회 이후에는 한마음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장수용 회장과 (주)조비 이승연 대표이사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여러 농업 현안에 관한 의견 교환과 함께 상생 협력을 당부했다. 조비 이승연 대표이사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농업 관련 이슈와 주제를 가지고 농업경영체와 현장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다”라며 “현장에 답이 있기에 농업인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 전업농신문(2024.4.2.)기사내용 인용

□ (주)팜한농

○ 질소·황 모두 담은 비료 팜한농 '유황엔' 인기

- 국내 유일 입상 형태 유안비료로 사용 편리
- 작물에 빠르게 흡수되고, 맛과 향, 저장성 향상 효과 우수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질소와 황을 동시에 공급해주는 입상유안비료 '유황엔'이 농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팜한농의 '유황엔'은 작물과 토양에 질소를 공급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요소비료를 대체하는 제품으로, 국내 유안(황산암모늄)비료 중 유일한 입상 형태를 자랑한다.

요소비료는 질소 함량이 46%로 높아도 암모니아태 질소로 분해된 후에야 작물에 흡수되지만, '유황엔'은 암모니아태 질소를 20% 함유해 작물에 훨씬 빠르게 흡수된다.

또 유허를 23% 이상 함유해 작물의 맛과 향,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유허엔’은 입상 제형의 특성상 수작업 및 기계 살포, 관주처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원예, 과수 작물을 비롯해 벼, 보리, 밀 등 곡류와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 등 사료 작물에도 우수한 효과를 발휘한다.

‘유허엔’을 사용해본 김재원(대구) 씨는 “요소비료를 관주 처리했을 때에는 호스가 막히거나 고온기에 비해가 발생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유허엔’은 비료가 잘 녹고 작물에 빠르게 흡수돼 시금치, 배추, 파 등 작물의 상품성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벼농사와 한우 사육으로 복합영농을 하고 있는 강성현(전남 화순) 씨는 “요소비료를 주면 벼 수확기까지 질소 성분이 많이 남아 소들이 벼짚을 먹고 설사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유허엔’으로 바꾼 후에는 소들도 멀쩡해 인근 농가들 사이에서 ‘유허엔’이 인기다”고 말했다.

※ 농기자재신문(2024.4.5.)기사내용 인용

□ (주)풍농

○ 유허 함유량 18% 달해...작물 생육촉진·상품성 개선 탁월

- ‘셀파원예플러스’, 별도 유허 비료 시비 필요 없어, 노동력·비용 절감 등 효과적



풍농이 선보인 프리미엄 기능성 비료, ‘셀파원예플러스’

비료전문기업, 풍농이 농가의 일손을 덜면서 작물의 생육 촉진과 농산물 상품성 개선에 효과적인 프리미엄 기능성비료, ‘셀파원예플러스’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필수양분과 미량요소가 균형적으로 함유된 것은 물론 고농도 입상유허도 다양 포함돼 원예·과수·월동작물을 비롯한 모든 작물 재배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풍농(대표이사 이동렬)이 선보인 ‘셀파원예플러스’ (13-7-10+2+0.2+유허18%칼슘)의 가장 큰 강점은 유허비료를 별도 구매해 시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물에 필요한 유허를 적정하게 공급한다는 점이다.

유허는 엽록소 형성에 관여해 작물 품질과 수량 증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당 공급과 질소 대사를 증진시켜 근류 형성을 촉진하고 단백질·지방·비타민 생산에 필수 성분이다.

이처럼 작물의 필수양분 중 하나인 유허를 함유한 복합비료 제품에는 유허 함유량이 통상

3~6% 수준이지만 ‘셀파원예플러스’의 유허 함유량은 무려 18%에 달한다. 그래서 별도의 유허 비료를 시비하지 않은 채 ‘셀파원예플러스’만 사용하면 된다. 이는 노동력과 비용 절감 등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풍농은 시비분별성을 높이기 위해 셀파원예플러스의 모든 입자를 색상화했다. 좌측이 셀파원예플러스.

‘셀파원예플러스’는 또 작물 생육촉진과 농산물 상품성 개선에 효과가 뛰어난 기능성 복합비료로도 주목받고 있다.

실제 풍농이 충남대학교에 의뢰해 실시한 마늘의 생육 및 수량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초장 길이는 72.2cm로, 관행구(70.5cm) 보다 약 2% 우수했고 줄기직경(32mm)도 관행구(30.8mm)보다 4% 뛰어났다. 구고(3.40cm)와 구경(4.30cm)은 관행구보다 각각 6%, 5% 우수했다.

수당구중은 개당 29.0g으로 관행구(27.1g) 보다 7% 증수된 것으로 조사됐고 10a당 수확량은 ‘셀파원예플러스’를 시비한 밭(779.5kg)이 관행구(711.5kg)와 비교해 약 10% 증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행 복합비료와 비교해 ‘셀파원예플러스’는 황산칼륨과 갈슘 등 기능성 양분을 강화한만큼 고추·감자·배추·부추 등 원예작물과 마늘·양파 등 월동작물, 사과·배·복숭아 등 과서류 재배에 특화된 제품이다.

여기에 통상 비료입자의 색깔이 어두운 계통이었지만 ‘셀파원예플러스’는 모든 입자를 색상화했다. 토양 색상과 대비돼 시비분별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풍농 관계자는 “비료를 시비할 때 사용 농가가 시비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균형 시비를 할 수 있도록 제품 외관을 향상시켰다. 사용한 농가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용방법은 원예류는 10a당 70~100kg, 과서류는 60~120kg을 시비한 후 토양과 골고루 섞이도록 전층시비해서 사용하면 비료효율을 높일 수 있다. 주문 및 상담전화는 080-022-4646으로 연락하면 된다.

풍농 관계자는 “원예작물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 결과, 초기 생육이 우수하고 수량 증수, 농산물 품질 향상 효과 등이 입증돼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농어민신문(2024.3.22.)기사내용 인용

□ (주)한국협화

○ 밭과 과수작물에 '땅심골드', 수도작엔 '땅심촉조짱'

- 고성능 복합비료 '땅심골드'...TPA, 유황 등 기능성 물질
- 고농도 촉조시비 전용비료 '땅심촉조짱'...완효성으로 황산동 함유



'땅심' 브랜드로 친숙한 한국협화가 '땅심골드'와 '땅심촉조짱'을 올해의 대표 상품으로 공급하고 있다.

우수한 품질과 효과를 자랑하는 '땅심골드'와 '땅심촉조짱'은 한국협화의 53년 노하우가 담긴 비료이다.

다목적 비료 '땅심골드'는 TPA 등의 기능성 물질이 뿌리 발육을 촉진해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TPA는 아미노산이 함유된 물질로서 뿌리 발육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비료 효율을 증대시키고, 토양병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확량 증대를 기대하게 하는 뛰어난 물질이다.

수도작에 탁월하고 원예, 과수 작물에도 우수한 '땅심촉조짱'은 고농도의 촉조시비 전용 비료이다. 완효성이 함유돼 있는 '땅심촉조짱'은 고농도 비료로서 사용량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유실량이 적고 비효가 오래 지속돼 수확량 증대에도 효과적이다. 규산과 석회성분까지 함유하고 있어 도복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양승갑 한국협화 영업본부장은 “올해도 농업인에게 '땅심골드'와 '땅심촉조짱' 등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의 비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영농자재신문(2024.3.26.)기사내용 인용

2 협회 주요 활동

- 무기질비료 산업 현안 업무 설명(3.25, 농식품부)
- 농관원 비료 품질 조사 담당자 무기질비료 공장 방문 안내 (3.26, 풍농 장항 공장)
- 무기질비료업계 현황 설명(3.27, 한농연)
- 신임 남해화학 대표이사 인사 및 비료업계 현안 업무 상의(4.3, 남해화학 서울 사무소)
- '24년 2분기 무기질비료 계약 가격 인하 조정 대응 농협 자재부 방문, 공정한 기준 가격 공개 및 회원사 입장 존중 요청(4.11, 농협중앙회)
- 무기질비료 수출 관련 회의 참석(4.16, 남해화학 회의실, 농식품부 주최)
- '24년 2분기 무기질비료 계약 가격 인하 조정 대응 농협 자재부 방문, 수용 곤란 및 적용시기 연기 요청(4.16, 농협중앙회)
- 협회 정기총회 개최(4.19, 협회)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보도 동향

【 국 내 】

□ '3분의 1토막' 비료 지원사업 농가부담 '가시화'

- 쌀 농민 “모내기도 다 못할 판” 분통, 특단의 대책 수립 필요...추경 반영해야

지난해 1000억원의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올해 288억원으로 삭감되자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각종 영농비용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쌀 농가들은 올해 상반기가 되면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조기 소진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은 비료값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국비 1801억원(실집행액 1240억원), 2023년에는 국비 1000억원이 투입돼 농가들의 부담을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회복돼 사업추진 이유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후 농업인단체, 농가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576억원의 예산 반영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절반 수준인 288억원만 반영됐다.

정부에서는 최근 원자재값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국면에서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의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은 원자재값 이외에도 다른 항목의 제조 원가가 오르면서 2021년과 비교해 현재 무기질비료 가격은 40%가량 올라 농가경영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광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이모작을 위해 옷거름을 주려고 (무기질비료지원사업) 지원금을 알아보니 약 60%가량 줄었다”면서 “아직 농민들이 그 충격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오면 비료값 부담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다. 이 정도 예산으로는 모내기도 다 못할 판”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추가경정예산이라도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각종 영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쌀 농민들의 농가 경영은 매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벼 수매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농가들의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생산비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쌀 농가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국농업신문(2024.3.20.)기사내용 인용

□ 사료가격 내린지 고작 3개월인데... "또 인하하라니"

○ 축협사료공장, 전방위 가격 인하 요구에 "불안정한 환율 고려 않아" 난색

- 정부·업계 거듭된 사료가격 인하 압박에 '사료가격심의위' 구성 제안

올해 들어 배합사료의 주원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료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수입 원료 시황의 변동가능성과 불안정한 환율 추이 등으로 당장의 가격 인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축협배합사료가공조합장업무협의회(회장 김호상·광주축협조합장)는 지난 3월 21일 천안축협에서 협의회를 열어 배합사료 수입원료 및 환율 시황과 전망을 보고받고 최근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나수민 농협사료 외자구매부장이 보고한 '24년 상반기 주원료의 평균 가격은 옥수수의 경우 톤당 252불로 전년 대비 18%, 소맥의 경우 272불로 전년대비 13%, 대두박은 500불로 전년대비 6% 하락하는 등 주요 원료곡의 평균 하락률은 12% 수준이다.

반면, 지난 연말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뒤 12월 28일 기준 1288원까지 하락한 환율은 올해 들어 각종 리스크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로 1340원을 넘나드는 불안한 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원료곡 하락률 지난해말 가격 인하여 '선제적 반영'

배합사료 주요 원료곡의 가격 하락을 둘러싸고 최근 정부를 비롯한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의 가격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축협배합사료가공조합들은 지난해 3차례에 달하는 선제적 가격 인하와 불안정한 환율 동향을 고려할 때 현지점에서 더이상의 가격 인하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더욱이 지난 연말 농협사료를 비롯한 축협 가공조합들의 kg당 평균 28원이 넘는 가격인하는 올 상반기 주요 곡물가격 하락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조치라는 게 농협사료와 사료가공조합들의 설명이다.

이날 사료가공조합들은 내달 총선을 앞두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도매시장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의 일환을 배경으로 하는 사료가격 인하 요구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축협 진경만 조합장은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내리는 게 마땅하지만 하루사이에 환율이 16~18원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다수의 요구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각종 물가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사료가격 안정이 중요하겠지만 사료가격을 '코앞에 진상'처럼 결정할 일은 더욱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사료가공조합의 경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격 인하 압박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는 만큼 배합사료가격조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현실화해 사료가격 인하와 인상을 검토·논의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영세 부천축협 조합장은 "사료가공조합을 갖고 있는 것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무적 판단으로 외부로부터 수시로 가격 인하 요구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은 가공조합들에게 심각한 경영 압박이 되고 있다"면서 "배합사료가공조합협의회내에 사료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배합사료가격조정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적극 검토를

도매시장 한우고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사료가격 인하로 분산하고자하는 배경도 적지 않은 만큼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호상 협의회장(광주축협 조합장)은 "1111개 회원 농·축협 조합에서 16개 사료가공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95개 구매 조합이 사료가격 인하를 당연시하고 있다. 최근 한우 도매시장 가격 하락은 사료가격 인하 요구의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다"면서 "일본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료가격안정기금의 제도 도입을 검토해 현실화 하는 등 농가경영 안정 장치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료가격안정기금과 관련해 최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제도 도입과 관련해 T/F등을 구성,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경제지주 사료자재부에 따르면 일본의 사료안정기금 운용과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비료가격안정지원 사업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사료안정기금의 농협 자체 도입 방안과 축산업계 전체 도입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 팜인사이트신문(2024.3.25.)기사내용 인용

□ 정부, '5조 공급망 기금' 활용해 '국산 요소' 생산지원 나선다

- '8대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 점검... '요소대란' 근본 방지책 논의
 - 일본 사례 참고... 국내 요소 생산기업에 자금 등 지원 검토

정부가 올해 5조원대 규모로 마련될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해 국내에 요소 생산 시설을 새로 짓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간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 내 수급 불안 때마다 되풀이되던 '요소 대란'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고려아연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 정부가 특별히 공급망 자립·다변화를 추진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요소와 함께 양극재, 양극재, 반도체 소재, 반도체 회귀가스, 희토류 영구자석, 마그네슘, 몰리브덴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 생산 시설 설립 지원을 포함해 요소의 근본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성이 부족한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내비쳤다.

롯데정밀화학 등 기업이 중심이 된 민관 협의체 '요소 얼라이언스'는 우선 국내 생산의 경제·사회적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 생산 시설 구축 타당성을 검토해 적정 생산 규모, 자금 조달 방안, 생산 시설 구축 일정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국내 요소 생산 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기재부 등과 협의해 범정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조성될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해 수급 불안이 반복되던 요소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본은 2020년부터 '국내 투자 촉진 기금'을 활용해 중요 품목의 국내 생산 신·증설 자금을 최대 100억엔(약 887억원)까지 보조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향후 '국산 요소' 생산에 상당한 규모의 직접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요소는 만드는 데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경제성이 낮아 더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정부는 중국 내 수급 상황에 따라 되풀이되는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낮은 요소의 국내 생산에 나서는 기업에 재정·세제 등 종합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작년 말 중국의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으로 국내 수급 불안이 초래된 차량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90%에 달한다.

이후 정부는 베트남 등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기업에 추가 운송비를 보조해왔는데, 국내에서의 요소 생산 지원이라는 근본적 해법 모색에 나선 것이다.

한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상당량의 요소를 자국에서 생산해 한국과 달리 중국의 수급 파동 때 받는 영향이 적다.

공급망 안정 기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을 근거로 조성된다.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국내 유턴 기업 지원,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쓰인다.

아울러 정부는 요소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가을·겨울에 앞서 연간 요소 수급 관리 계획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요소를 포함한 8대 프로젝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술 개발, 생산 투자, 대체처, 비축 등 공급망 종합 지원 사업 메뉴얼을 마련하고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2024.3.25.)기사내용 인용

□ 생수보다 싼 비릿값...업계는 괴멸 '초임기'

초상집이다. 최근 비료업계 분위기를 일컫는 말이다. 최근 일이라고 하나 어둠의 터널은 길고 폭은 넓다. 비릿값이 약 20% 이상 하락 곡선을 그린 2016년 이후로 '잃어버린 10년'에 근접하고 있다. 그나마 2022년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격 상승의 기회를 살리면서 반짝 회복의 시간을 벌었을 뿐 비료산업의 미래는 '암흑' 그 자체라고 업계는 자평한다.

비료업계는 상실감을 넘어 무력감에 휩싸여 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미운털투성이다. 조금이라도 가격 상승의 기미가 보이면 정부와 심지어 언론까지 참전해 너나 할 것 없이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다. 일말의 소통조차 튀워주지 않는 싸늘한 분위기로 업계가 질식 일보 직전이라는 게 복수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당연히 값싸고 질 좋은 비료는 농촌과 농민에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서 극악의 마진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면 산업으로의 재투자과 발전을 반복하는 선순환 구조는 꿈도 꾸지 못한다. 이는 국내 곳곳의 비료공장 외관이 증명해준다. 노후화로 부식되고 있는 공장은 기본. 비용을 아끼기 위해 폐인트칠조차 버거워하는 비료공장이 있다는 사실은 두 눈을 의심케 한다. 그것도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기업조차 이 지경이라면 말 다했다.

올해도 비료업계는 약 600억원의 적자를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적자 행렬에서 아직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야 할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국내 비료 기업들은 사업 다각화로 그나마 입에 풀칠 중이다.

수년 동안 꺾멸 직전의 비료산업을 지탱해 온 비결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어서다. 국내 비료 기업은 작물보호제를 겸업하거나 호텔 등 타 분야 사업까지 영위하면서 비료업으로 쌓은 적자 리스크를 헷지(Hedge) 중이다. 당장 내일이라도 간판을 내리는 업체가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경제에서 전후방산업은 해당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산업이 어려울 때 리스크를 분산해 주고, 고통을 감내하게 만들어 주는 일종의 완충(버퍼) 역할까지 소화한다. 비료산업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후방산업으로 국내 농업이 발전하는 데 일등공신으로 불리어 왔지만, 이제는 옛날얘기가 됐다.

앞으로도 비료산업은 악재의 연속이다. 업계에서는 2030년을 매출절벽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비료 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만들고 있는 구조지만 복합비료 관세가 2029년이면 '제로'에 수렴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완제품 비료를 수출해 국내에서 출혈 경쟁을 벌인다면 지금의 알팍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국내 비료업체 중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심심찮게 '비료 주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고 비료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최소한 농업의 후방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건전 생태계만큼은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비료업계는 실제 비릿값이 생수보다 싸다는 이야기를 한다. 현재 비료 가격은 1kg(≒L)에 약 780원이다. 편의점에 파는 생수의 가격이 700ml 기준 같은 가격대임을 감안하면 물보다 싼 셈이다.

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지 말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한국농업신문(2024.3.27.)기사내용 인용

□ 농관원, 2024년 4월부터 농자재 집중점검

○ 불법 농자재 근절을 위한 온오프라인 관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4월부터 5월까지 농자재 판매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농약·비료 등에 대한 상반기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오프라인 5,677개 업체 및 온라인 농자재 판매업체를 점검하여 농약 128건, 비료 168건의 불법 농자재를 적발하였고, 그중 판매업체 대표 39명을 고발하였다.

올해부터는 명예지도원이 농자재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부정·불량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판매 금지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등),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 판매, 가격표시제, 판매정보 기록 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자재는 쇼핑몰을 상시 점검하여 위반 업체는 고발 조치하고, 농약성분(품목) 검색 금지어 지정, 유해사이트 차단 등 부정·불량 농자재가 거래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유통 점검에서 농약 및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 비료, 제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점검하고, 유기농업자재는 공시제품에 대하여 금지 물질 검출 여부, 원료 투입비율, 공시 받지 않은 자재의 허위표시·광고, 과장광고 등을 공시기관과 이종으로 점검한다.

※ 농기자재신문(2024.3.29.)기사내용 인용

□ 제주, 비료사용 처방 농가 추적관리 나서

○ 도, 처방서 이행농가 추적관리 시범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비료사용 처방서 이행농가 추적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20여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범사업 참여 농가의 농경지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 준수사항 모니터링 △작물 생육상황 점검 △토양 환경변화 추적·관리 등이다.

※ 한국농어민신문(2024.4.1.)기사내용 인용

□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급감…2022년 대비 고작 16% 수준”

○ 올들어 공급가격 7~10% 내렸지만, 농가 구입가격지수 꾸준히 상승

- 올해 지원규모 총 748억여만원, 전년비 28.8% 수준 밖에 안 돼
- 여당 ‘인상분 전액 지원 추진’ 공약, 관련 예산 확대 목소리 커져

올해 무기질비료 공급가격이 지난해 보다 약 7~10%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농가 구입가격지수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등의 여파로 농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농가들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2022년 대비 16% 수준에 불과한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단위: 원)



비료업계에 따르면 무기질비료의 원료가격이 급등하자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총 지원규모는 4802억6400만원(국비 30%·지방비 20%·농협 20%·비료업체 10%)이었다. 이중 정부 지원예산은 1800억9900만원. 이를 통해 무기질비료 비종별 판매량에 대해 가격인상분(톤당 58만387원)의 80%를 지원했다. 2023년 총 지원액은 2666억6700만원으로 감소했고 정부 예산은 1000억원이 반영됐다. 지난해에도 가격인상분(52만2284원)의 80%를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원 예산이 더 급감했다. 진통 끝에 국회를 거쳐 반영된 정부 예산은 288억1500만원(총 지원규모 748억4000만원)이다. 지방비와 농협·비료업체의 분담액까지 합하면 지원 규모는 748억4000만원이다. 해당 금액은 지난해 4분기 농가할인 구매가격 대비 가격상승분의 80% 이내를 지원한다.

문제는 올해 지원 규모가 2023년 대비 28.8%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원규모가 컸던 2022년과 비교하면 약 16%에 그친다. 예년보다 지원 예산이 현저히 적은 만큼 올해 해당 예산은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농협·비료업체의 지원액을 농가가 부담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농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정부가 예측한 올해 톤당 가격 상승분은 22만6200원이다. 2024년 예상판매 평균가격(87만7642원)에서 지난해 4분기 농가할인 구매 평균가격(65만1442원)을 뺀 금액이다.

이중 정부와 지자체, 농협·비료업체의 지원액은 톤당 18만960원이다. 이를 20kg 비료로 환산하면 농가들은 포대 당 약 3619원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농가들은 해당 금액을 더 지불해야 한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원료가격 하락으로 올해 농협계통구매가격은 지난해 보다 약 7~10% 정도 내렸다. 그동안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했고 가격상승분의 일부만 농가가 부담해왔다”며 “하지만 올해 예산이 예년보다 적은만큼 일찍 소진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부와 지자체, 농협·기업이 부담했던 가격상승분까지 농가가 떠안아야 한다. 가뜩이나 농가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가 경제가 좋지 않다는 점과 물가 안정을 내세우는 정부 정책을 감안하면 무기질비료 관련 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도 이 같은 현장 우려에 공감대를 표하며 총선공약집에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전액 지원 추진’을 포함시켰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산물 소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무기질비료를 비롯한 필수 농자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총선 관련 여당 공약집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편성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한국농어민신문(2024.4.2.)기사내용 인용

□ 농촌진흥청, ‘바이오차’ 비료공정규격 설정

○ ‘바이오차’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개정

- 농립부산물 및 가축분 ‘바이오차’로 제조,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립부산물 또는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품질관리 기준

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4월 2일자로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립부산물과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공정규격 마련 요구에 부응한 규제개선 조치다.

이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은 자체 시험한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유럽바이오차인증(EBC), 국제바이오차협회(IBI) 등에서 수립한 국제기준과 조화를 고려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목재류를 비롯한 양겨, 농작물 잔사, 과수 전정지 등 농립부산물과 우분, 계분 등 가축분으로 제조한 ‘바이오차’가 농경지를 활용한 탄소 저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기자재신문(2024.4.2.)기사내용 인용

□ 스마트농기자재 HS코드 없이 수출 ‘걸림돌’

○ 관세 등 통관절차에 HS코드 필수

- 비농업용 자동화시스템으로 분류되거나, 예외항목이라는 이유로 관세 물리는 경우 많아
- 영세한 농업용 자재상이나 업체들 많아, 약간의 관세로도 타격 커

스마트농업 기자재의 수출이 성장하고 있지만 스마트 농기자재에 대한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코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HS코드는 1988년 발효된 HS국제협약에 따라 물품별로 할당된 분류번호로 세율결정, 수출입 요건, 원산지판정 등에 활용되는 기초적 자료다. 세계관세기구(WCO)가 관리하고 있지만 각 국가 사정에 따라 코드를 덧붙여 세분화해 활용할 수도 있다.

스마트농기자재의 경우 아직 HS코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가마다 스마트농기자재에 사용하는 HS코드가 다르며 전기·신호장치 제조업, 자동제어기 등으로 분류·신고해 통관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각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불명확한 HS코드 사용으로 스마트 농기자재의 수출 통관 시 불필요한 관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해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관세 등 통관절차에 HS코드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므로 불분명한 HS코드 사용은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통상 개발도상국의 경우 농업용 기기들은 무관

세인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팜 관련 기기들은 기타 항목으로 잡히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애매한 HS코드로 국제제제 등 비관세 문제로 통관이 미뤄지는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주준현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이 같은 애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계속 국내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명시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현재로선 농산업 수출지원단 등에 민원을 주면 외교부를 통해 현지 공관과 이야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수출업체들은 우선 주요 수출국과 양자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주길 원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농기자재의 HS코드 부재로 정확한 수출통계를 산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김 교수는 “국내 관련 기관에서도 HS코드가 불분명한 관계로 스마트팜 제품 관련 교역액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농수축산신문(2024.4.2.)기사내용 인용

□ 중동발 리스크에 원자재가격 '흔들'...국내 배합사료 등 '빨간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등 중동발 리스크로 원달러환율이 치솟으면서 원자재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6일 기준 원달러환율은 1394원으로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1400원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중동발 리스크로 유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과 수출시장 모두에 타격이 있는 만큼 관련 업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곡물가격 하락 기류에 최근 가격 인하 조짐을 보였던 배합사료업체는 원달러환율 상승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선물거래의 특성상 최근 입고되는 곡물 가격이 소폭 오른 상태에서 원달러환율의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높은 베이스를 기록했다.

사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상운임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등 사료업계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까지 올라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동발 리스크가 해결되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국제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원자재 시장 안정을 담보할 수 없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원자재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보호제(농약)·비료 업계에도 위기가 감돌고

있다. 원자재 구입 시점과 실제 대금 지불 시점 간 간극이 있어 당장 가시적 영향은 없다 해도 결국 장기적으로 원가 비중을 높여 업계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종섭 한국작물보호협회 이사는 “과거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갈등으로 물류비와 환율이 치솟은 때에도 업체들이 위험부담을 크게 떠안으며 어려움을 겨우 넘겼는데 또 그때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도 가격 상승 요인이 있고 업체들이 어떻게든 감당하고 있는 중이지만 한계점에 도달하면 결국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무기질비료 업계 관계자도 “환율이 50원, 100원만 올라도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 제품 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데다 환차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해 비료 업계의 적자가 컸는데 올해도 고환율에 물류비 상승 등 여러 원가 상승 요인을 감안하면 비료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무기질비료의 경우 농협 계통공급이 97%에 달해 원가 상승분을 자율적으로 충분히 판매가에 반영할 수 없는 구조여서 업체들은 2분기 농협 계통구매 가격 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스마트농업계는 주요 수출시장인 중동 지역의 긴장고조에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이란에 진출한 업체들과 중동으로 새롭게 수출을 개척하려는 업체들에게는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스마트농기업 관계자는 “지난 16일 사우디에서 바이어가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이란·이스라엘 충돌 여파로 취소됐다”고 전했으며 또다른 스마트농업계 관계자도 “중동 지역에 거래를 새롭게 뚫으려는 업체들의 협상이 중단되는 등 타격을 피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 농수축산신문(2024.4.16.)기사내용 인용

【 국 외 】

□ 베트남 농자재 시장, 땅심 약해 유기질비료에 관심높아

○ 생산성 줄면서 토양관리 주목, 현지 수요 못따라가 수입 의존

- 농진원, 테스트베드지원 추진, 6개 제품 선정...효과검증 나서

농자재는 일반 소비자들과 달리 제품 효과성을 입증하는 수단이 제한적이다. 특히 기후·토양·작물 등이 다른 해외에서 한국 농자재 성능을 선보일 기회는 더더욱 적다. 현지 ‘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을 바탕으로 농자재 수출을 위한 민관 협력이 주목받는 이유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베트남에서 펼쳐는 농자재 실증사업 현장을 찾아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짚어봤다.

“베트남은 날씨가 더워 이모작뿐 아니라 1년에 농작물을 3번 수확할 수 있는 3기작까지 하고 있어 지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화학비료도 많이 사용하다보니 최근에는 생산성이 감소해 토양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죠.”

5일 베트남 빈푹성에 위치한 수박밭에서 한국 농자재를 검증하는 베트남 국립비료검증원(NCFT)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베트남에서 유기질 비료와 미생물제제 등 한국의 친환경농자재가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NCFT에 따르면 베트남은 ‘농지법’을 시행해 정부 차원에서 토양을 관리하고, 메콩 델타 지역을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유기질 비료 생산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베트남의 지난해 유기질비료 생산량은 480만t으로 집계된다. 전체 비료 생산량(2070만t)의 23%다. 2017년 비중(9.5%)과 비교하면 13.5%포인트 증가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주 내용으로 농지법을 개정한 2019년 이후엔 더 늘었다. 하지만 현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외국산으로 그만큼을 충당하고 있다.

농진원은 국산 농자재의 수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중국·카자흐스탄·인도·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서 추진했다.

베트남은 이 사업의 거점 국가다. 농진원에 따르면 베트남은 농업농촌개발부 식물보호국(PPD) 산하인 NCFT에서 인허가를 취득하고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농자재를 수출할 수 있다.

이에 농진원은 지난해부터 NCFT와 협약을 맺고 인허가를 연계한 실증사업을 펼치고 있다.

※ 농민신문(2024.3.18.)기사내용 인용

□ 'CAC 2024'...한국산 농자재 해외진출 열기 뜨겁다

○ 농진원 지원 ‘한국관’ 10개 기업 참여, 수출상당액 2840만달러

- 2017년부터 85개 농자재·농산업 업체 ‘한국관’서 기술·제품 홍보
- 한일, 천지바이오, 누보, 아그로비즈, 티켄, 투엠바이오 단독부스

우리나라 농자재기업들이 직면한 내수 정체와 과열경쟁을 수출개척으로 풀어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달 13~15일 사흘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제24회 CAC(중국국제농화학 및 작물

보호박람회, China International Agrochemical & Crop Protection Exhibition)’에 국내 16여개 농자재기업들이 전시에 참여해 전 세계 바이어들과 만남의 장을 펼쳤다.

‘상하이 국립컨벤션 및 전시센터(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Shanghai)’에서 열린 이번 CAC에는 30개국 1500여 기업이 부스를 설치했다. 또 세계 120여 개국에서 4만명 이상의 전문가급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CAC주최 측은 집계했다. 우리나라 10개 기업이 참여한 ‘한국관’을 비롯해 호주 등도 국가 단위로 참여했다.

‘한국관’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국내 농산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농진원의 지원으로 85개 기업이 CAC에 참여해 국내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전 세계 바이어에 알렸다.

이번 ‘CAC 2024’에는 도프, 코트그린, 효성오앤비, 코시팜스, 가야바이오, 새턴바이오텍, 남보, 스타스테크, 오더스, 글로벌아그로 등 10개 기업이 한국관 전시에 참여했다. 농진원은 상해 현지에서 중국 바이어들을 따로 초대해 한국관 참가 기업과 전시 제품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 영농자재신문(2024.3.30.)기사내용 인용

4 농정 이슈

□ 농정공약 - 여야, 농업인 삶의질 제고·재해대책 실효성 강화

○ 국민의힘, 무기질 비료 인상분 전액 지원

더불어민주당, 농가손실보전제 도입해 생산자 보호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정당이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 힘 주요 농정공약으로 ▲농촌 활력 위한 규제 완화 ▲농가 지원 강화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 ▲해외 우수 인재 전담체계 구축 ▲이상기후·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취약층 농수산식품 지원 확대 ▲산림 재난 대응 강화 등에 대한 공약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치솟은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전액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농정공약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농산물 계약재배 대폭 확대 및



물가안정 ▲소멸위기 농산어촌 균형발전 거점 전환 ▲스마트 미래농업 전환 ▲식량안보와 탄소 중립 선도하는 전략산업 육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이 있다.

제22대 총선 공약에서 ‘기후위기·고물가시대, 농산물가격안정 실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보장’을 강조했다. 생산자가 걱정없이 농사짓고 소비자가 장바구니 물가를 염려하지 않도록 민생안정의 기본인 농산물 가격안정과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 원예산업신문(2024.3.27.)기사내용 인용

□ 생산비보다 쌀값 더 올랐다...벼농사 순수익 12.7% ↑

○ 통계청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 10a당 소득 65만4539원...소득률 53.1% 기록
- 산지 쌀 가격 작년 4분기 5만669원...11.5% ↑

산지 쌀값이 오르면서 벼농사 순수익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비 증가보다 총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5년간 기록을 보면 쌀 가격보다 생산비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연평균 1.3% 줄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a(아르·1000㎡) 당 논벼 총수입은 123만2953원으로 전년보다 6만1217원(5.2%) 올랐다.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10a당 소득은 65만4539원으로 전년보다 8.1% 상승했다. 소득을 총수입으로 나눈 소득률은 1.4%포인트(p) 오른 53.1%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생산비를 뺀 10a당 순수익은 35만7593원으로 전년보다 12.7%(4만318원) 올랐다. 생산비 증가(2.4%) 대비 총수입이 더 크게 증가한 탓이다.

산지 쌀 가격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산지 20kg 당 5만699원으로 전년동기(4만5455원) 대비 11.5% 올랐다. 같은 기간 10a당 쌀 생산량은 525kg으로 전년(518kg) 대비 1.0% 올랐다.

지난해 10a당 논벼 생산비는 87만5360원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20kg당 쌀 생산비는 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431원(1.4%) 증가했다.

※ 뉴시스(2024.3.28.)기사내용 인용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 최근 4년간 연도별 무기질비료 생산·출하 현황

(단위 : 천 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 산 량	2,142	2,397	2,039	1,750
출 하 량	2,054	2,429	1,860	1,769*

* 전년 이월분 포함

※ 협회 회원사 기준(수출 포함)

□ 최근 4년간 연도별 무기질비료 원자재 톤당 수입가격(달러) 및 환율

(단위 : \$,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요 소	281	307	366	597	868	650	469	429
암모니아	273	270	437	672	957	936	580	457
D A P	314	349	485	749	948	859	638	528
염화칼륨	312	274	271	363	633	965	533	346
환 율 (매대기준율)	1,207	1,154	1,117	1,171	1,232	1,351	1,295	1,317

※ 관세청 무역통계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6 무기질비료 상식

□ 무기질비료는 토양을 산성화 시킨다?

토양 산성화의 원인은 무기질비료가 아닌 다른 영향 때문이며, 오히려 무기질비료는 토양산성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질비료가 토양산성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무기질비료에는 산성 성분과 알칼리 성분이 동시에 함유되어 있는데, 비료 성분의 유허(S), 질소(N), 칼륨(K)은 산성 성분이고 석회(Ca), 고토(Mg), 인(P) 등은 알칼리 성분입니다.

무기질비료를 적절히 과학적으로 시비하면 비료사용으로 인한 산성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모암자체가 산성인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으로 전체 모암의 70%를 차지하며 장석과 석영 등으로 이루어져 양분이 비교적 작고 양분보유능력이 적은 흙이고 칼슘이 적고 규소 함량이 많은 산성토양입니다.

이러한 모암은 풍화작용과 집중강우 등으로 인해 알칼리성 양이온(Ca, Mg, K 등)이 줄어들고 토양표면에 수소이온(H+)이 많아져 양이온 성분이 용탈되어서 토양이 산성화되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산성비 또한 우리나라 토양을 척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예로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산성토양, 비가 적은 곳은 염기성(알칼리) 토양이 발달하는데 이는 강우량과 토양 중 수분의 증발산량 차이가 그 지역의 토양산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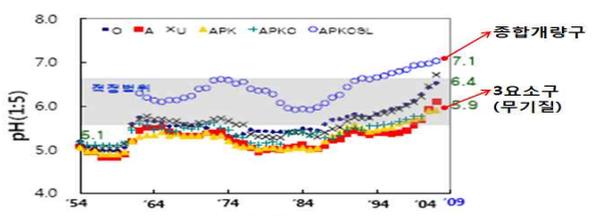
한해 비가 5,000mm까지 많이 오는 콜롬비아 토양은 pH가 4.5정도이고 건조한 사막지역의 토양은 pH가 9~10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토양의 산성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토양 산성화의 주요 원인은 무기질비료가 아니라 우리나라 토양의 특성, 지리학적 특성, 기후, 산성비 등의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질비료를 균형 있게 시비하면 산성토양을 개량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 무기질비료가 토양산성화를 유발한다는 잘못된 인식

● 농진청에서 동일포장에서 50년간 계속 시험



※ 유인. 요소 : 11kg/10a . 3요소 : 11-7-8kg/10a . 붓질회비 : 750kg/10a
 ※ 무비구(A). 유인구(A). 3요소구(APK). 퇴비구(APKC). 증합개량제구(APKCSL)

결과

- 3요소구(11-7-8)의 pH가 50년 전에 비해 0.8 높아졌음
- 50년간의 시험에서 화학비료에 의한 산성화 증거 찾지 못함

농진청에서 동일한 논에 50년간 시험한 결과에 따르면 무기질비료를 사용한 논은 비료를 주지 않은 토양(임야 등)에 비해 pH가 0.6~0.9 정도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기질비료를 적절히 시비하면 오히려 산성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식량안보와 무기질비료 자료 인용

7 이달의 주요 인사

- (주)농우바이오 인사(3.20일자)
 - 양현구 대표이사
- 농협경제지주 인사(3.21일자)
 -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 남해화학(주) 인사(3.22일자)
 - 김창수 대표이사
- (주)농협케미컬 인사(4.1일자)
 - 하명곤 대표이사
- (주)조비 인사(4.1일자)
 - 서용호 상무이사

8 회원사 제품 소개

- 남해화학(주)



- 제품명 : 신세대22
- 성분량 : 22-7-7+3+0.2
- 특성 및 효과
 - 측조 시비에 적합하도록 설계
 - 완효성 요소 함유로 효과가 지속적
 - 고토와 봉소를 함유하여 미질을 향상



비료와 식량 -2024년 4월호-

□ (주)조비



- 제품명 : 단한번
- 성분량 : 18-7-9+2 (아미톤, 완효성)
- 특성 및 효과
 - 1회 시비로 비효가 3~4개월 지속되어 웃거름 생략이 가능한 완효성 비료
 - 입자가 균일하고 단단하여 측조시비 등 기계 살포에 적합한 비료
 - 대사 활성 물질 아미톤이 함유되어 초기생육이 증진되며 수확량과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줌
 - 고추/마늘/양파 등 생육기간 긴 원예작물에 효과가 좋음

□ (주)팜한농



- 제품명 : 금형NS
- 성분량 : 10-0-0+황73 (황질소 비료)
- 특성 및 효과
 - 금형NS 1g당 포함된 50 μ m 2억개 미세황은 토양에 쉽게 분해되고 미생물에 의해 빨리 이온화
 - 빠른 용해로 작물이 이용가능한 황산이온화에 용이하면서 생육기간 동안 황 효과가 지속
 - 금형NS의 높은 밀도의 영양분은 토양에 필요한 비료량을 절감
 - 작물의 비대를 촉진하고 생리장애를 줄여 수확량 증대 효과가 우수
 - 토양의 PH 조절, 균중기피효과 등 토양 저항성을 향상

□ (주)풍농



- 제품명 : 명품300
- 성분량 : 30-7-9, 고토1, 아연0.1, 완효성 코팅요소, 칼라요소 함유
- 특성 및 효과
 - 국내 최고의 고농도 밑거름 비료
 - 균일한 입도와 단단한 경도로 측조시비 효율 최고의 제품으로 사용 편리, 시비능률이 뛰어남
 - 완효성 양분 함유의 비료 사용량, 노동력 등 시비 노력비 절감
 - 기능성 아연 함유로 간척지(추락담 등) 초기, 중기생육향상



비료와 식량 -2024년 4월호-

□ (주)한국협화



- 제품명 : 땅심촉조짱
- 성분량 : 28-7-8+1+0.1(규산, 칼슘, 미량요소 함유)
- 특성 및 효과
 - 완효성 함유, 고농도 측조시비 전용비료
 - 초기생육에 효과적이며, 증수효과 우수
 - 비효가 오래 지속되며 미질 향상

□ (주)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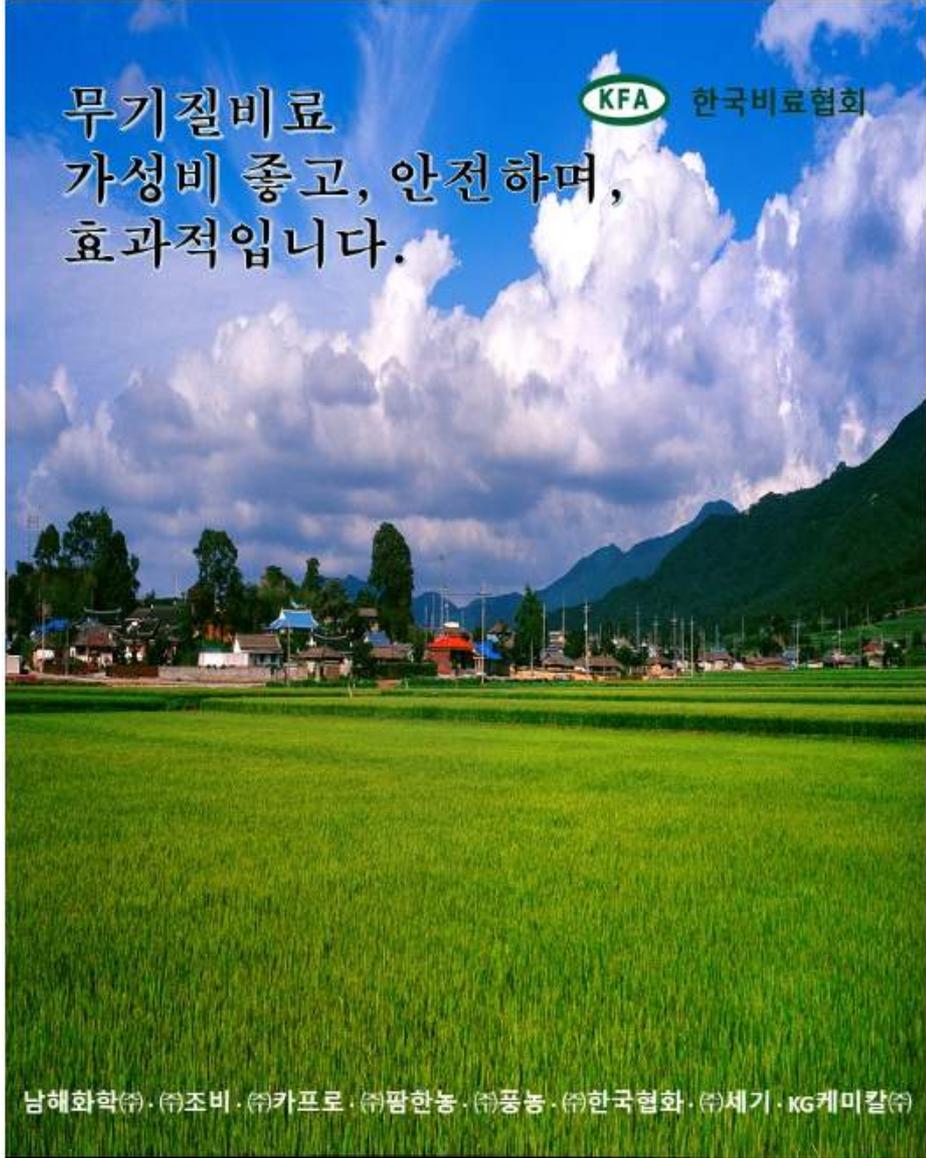
- 제품명 : 과석동그리
- 성분량 : 가용성인산 17%, 수용성인산 13%
- 특성 및 효과
 - 대부분이 수용성인산이므로 단경기 작물 및 저온기 작물의 초기 생육을 조장
 - 유황 및 석회결핍 토양에 매우 좋음
 - 시설재배 하우스에 사용하면 가스 발생을 억제

□ KG케미칼(주)



- 제품명 : 미생물울코팅
- 성분량 : 30-5-7+1+0.1
- 특성 및 효과
 - PLS(농약 잔류허용 기준)대비 안정성이 증가
 - 시그모이드 타입 코팅으로 생육 적기 양분 용출
 - 매끄러운 표면+가루 미발생으로 측조시비 탁월
 - 병 예방 미생물 10병+충 예방 미생물 2~3병 함유

※ 무기질비료 사용안내서 인용



무기질비료
가성비 좋고, 안전하며,
효과적입니다.



한국비료협회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출처 : 농어촌공사 농촌경관사진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0~2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